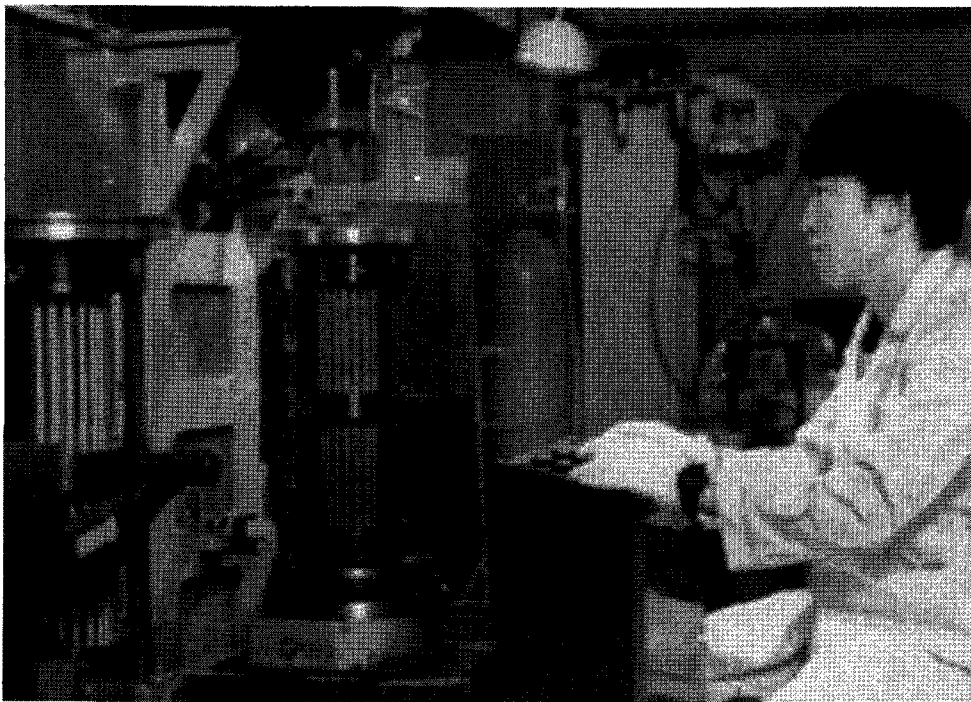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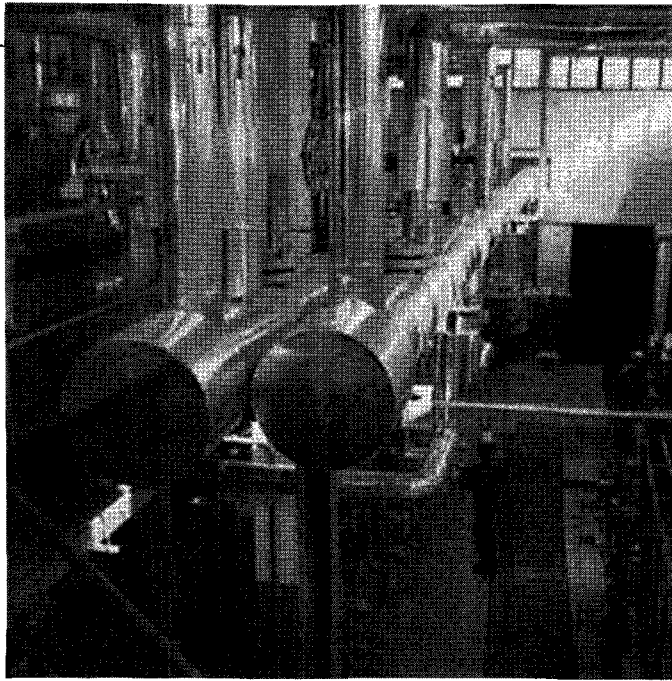
##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착수의 원년

韓國原子力研究所



韓國原子力研究所는 1992년을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착수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지난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간의 구체적 협의가 진행된 이 계획이 금년중 확정되면 이를 본격추진할 계획이다.

1992년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여러가지 연구과제들과 아울러 新型爐개발, 改良核燃料개발 등 새로운 대형과제와 울진, 월성 등지의 신규원전계통설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多目的研究用 原子爐 설계건조사



업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또한 放射性廢棄物관리사업도 부지가 확보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금년에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특히 원자력기술 자립을 위한 연구개발부문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G7 과제로 선정된 차세대 輕水爐개발분야에 있어서는 2001년까지 기술개발완료목표로 금년에는 개념설계에 착수하게 된다.

高速增殖爐는 2010년대에 국내 자력으로 실증로를 건설한다는 목표하에 금년에는 요소기술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80년대에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개발한 국산核燃料를 더욱 개선하여 90년대 중반에는 보다 더 건전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량형 輕·重水爐의 핵연료개발에도 힘을 계획이다.

또한 레이저, 로봇틱스, 초전도체, 신소재 등 원자력기술에 접목이 가능한 첨단기술개발부문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이러한 연구결과와 산업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힘을 계획이다.

핵연료국산화사업에 있어서 가동중인 모든 원자력발전소에서 필요한 핵연료를 독자설계하여 생산, 공급토록 하며 설계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경수로설계사업에 있어서는 영광 3,4호기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작성 등 최종설계업무를 수행하며 한국형표준원전으로서 최초의 국내주도설계로 추진되는 울진 3,4호기는 금년에 본격적인 설계가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중수로설계사업에 있어서는 기존 캐나다와의 계약에 의하여 월성 2호기설계를 추진하게 되며 금년에 계약이 추진되는 월성 3,4호기는 기술전수사항을 계약에 충실히 반영하여 후속기건설 때는 국내주도로 설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해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1992년을 큰 전환점으로 삼아 부지확정과 함께 지역협의를 통하여 토지매입에 착수할 계획이며 단지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저준위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장의 개념설계를 완료하고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의 기본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일반국민과 협의대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한 원자력국민이해증진활동을 적극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핵사찰문제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가안전조치체제와 핵물질분석기술 등 관련업무를 강화하여 예상되는 남북간 상호 핵사찰에 대비할 계획이다.